

지역 소식통

부안군, 기후변화 취약층 지원 공모 선정 5억 확보

부안군이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쿨루프(시원 지붕)나 쉼터 등을 지원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엔 선정된 사업은 2023년도 기후변화 취약지역·계층 지원으로 '기후변화 취약시설 차열조성'과 '이외근로자 쉼터 조성'이다.

폭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고령층 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지붕과 벽면에 차열페인트 시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설 외부의 열기가 내부로 침투하지 않게 돼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과 이용자들의 온열질환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마땅한 휴식 공간이 없어 폭염에 취약한 이외근로자를 위한 쉼터를 교동천 인공습지, 부안군 환경센터, 변신비탈길에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부안군이 기후 위기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과 확고한 의지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2년 연속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대한다"고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제278회 임시회를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연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승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 무성서원 문화관광 개발과 활성화 촉구를 제안했고, 이만재 의원은 '백제문화권을 선도하는 정읍 조성'을 촉구했으며, 이도형 의원은 '안 내도 되는 TV 수신료로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복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방의회 자꾸된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주요 일정으로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이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개방형 휴게소' 설치된다

정읍시-도로공사 전북본부-삼건사, 도입 위한 3자 간 협약

정읍시에 전라북도 최초로 개방형 휴게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8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삼건사(휴게소 운영사)와 함께 호남고속도로 내 녹두장군 휴게소(천안 방향)를 2023년까지 개방형 휴게소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안중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정호경 삼건사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개방형 휴게소 설치사업은 고속도로 외 후면부 국도에서도 진입해 지

역주인이 휴게소 매장과 주유소 등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신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실천과제로 선정되어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이들 세 기관은 지역주민이 개방형 휴게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장과 외부고객 주차장 확보 등 기반 시설 정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정읍시의 관광명소 등을 휴게소 이용고객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유지관리에 상호

협력한다. 이와 함께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시는 개방형 휴게소가 설치되면 농특산물 홍보관매장 활성화를 통해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우수 농·특산물 홍보 등 지역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인근 주민과 제2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들이 개방형 휴게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특별 방역기간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 강도 높은 대책 추진

부안군이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D)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유럽·아시아 등 해외에서의 AI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축산농가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생석회 도포, 소독필증 확인·보관,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등 가

금사육 농장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내 AI 발생과 유입을 막기 위해 거점 소독 시설 1곳을 추가 운영한다.

또한 가금류 사육 농가 전담관을 지정해 농가마다 전화를 걸어 방역수칙 지도 점검 및 홍보하고, 특히 공동방역단 차량 및 드론 등을 투입해 철새 도래지 및 농가 주변 도로를 소독할 예정이다.

또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돼지 등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하고 항체검사를 확대 실시해 형성률이 부족한 농장에 대해서는 과대료 처분, 추가검증, 지도점검 등도 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계속되는 철새 유입으로 인해 오염원이 언제든 농장 안으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고병원성 AI의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의 철저한 방역뿐만 아니라 철새도래지, 소화천, 발생 위험지역 방문 자제 등 범국민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AI·구제역·ASF 발생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와 관련 단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농산물 베트남 시장 판로개척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읍시가 베트남의 글로벌 대형 유통사와 1년 이내 3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18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학수 시장은 지난 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 수출·입 업체 '에버굿 코퍼레이션' 서민호 대표와 베트남 현지 유통업체 '트위안 프루트 컴퍼니' 도치트위 대표와 함께 3자 간 농산물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1년 이내 30만 달러 규모로 정읍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배, 포도, 딸기 등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게 된다.

이들 세 기관은 앞으로 베트남 전역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시는 교민들과 현지인들에게 정



읍지역의 맛있는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한 농산물 수출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우리 농산물이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역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위해 힘을 계속"이라며 "앞으로도 정읍 농산물의 국내외 판로개척에 발로 뛰며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입 업체 '에버굿'은 한국과 베트남 현지에 최적화된 베트남 소재 한국계 수출·마케팅 전문기업이다. '에버굿'은 정읍시와 베트남 간 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현지 유통업체인 트위안 프루트 컴퍼니는 베트남 과일 수입과 도소매 유통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한 기업이다. 20년 이상의 설립과 끊임없는 혁신 끝에 하노이와 호찌민 지역에 24개 지역점을 비롯한 도소매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트위안 프루트'는 이날 협약에 따라 정읍 농산물이 베트남에서 좋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매장 확보와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해 힘을 계속 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16일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리는 자매결연도시 서울 마포구 '제29회 마포구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상호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심덕섭 고창군수, 자매결연도시 서울 마포구민의 날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16일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리는 자매결연도시 서울 마포구 '제29회 마포구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마포 방문은 지난 제49회 고창 모양성제 때 방문했던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초청으로 참석하게 됐으며, 심덕섭 군수를 단장으로 방문단 13명이 찾았다.

기념식을 찾은 방문단은 축제장 관람은 물론, 고창 농특산물 판매부스를 찾아가 격려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 문화비축기지 하늘공원, 망원시

장 등을 시찰하며 자매결연도시 마포구의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하며 자매결연도시 마포구를 더욱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과 서울 마포구는 2018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협력사업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지속해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마포구의 열렬한 환영에 감사드리며, 이번 제29회 마포구민의 날 방문을 통해 고창군과 마포구의 상호 교류가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구직 청년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운영

정읍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에 나선다.

시는 청년 실업을 증가와 장기간 취업 준비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10월 전라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진행, 정장 보유 수와 전문성 등을 평가해 전주 완산구에 소재한 센터도를 운영업체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료 정장 대여는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여 품목은 남녀 정장과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벨트, 구두 등 면접에 필요한 의류 일체다. 정장 대여 시 전문가의 코디 조언과 간단한 수선도 받을 수 있으며, 대여한 의류는 2박 3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대여를 원하는 청년은 면접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확인 문자가 전송되면 신분증을 지참해 대여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대여 횟수는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지역경제과(063-539-564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뒤 성과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